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김 영 희*

국문초록

변화가 극심한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과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고난 속에서는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다. 고난은 소외감, 분노, 좌절과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분노조차 일으키며, 우리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고난 속 부재중 인줄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체성 검증과 시련의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알게되고 고난을 통해 인생에 대한 넓고 새로운 개념과 태도를 갖게 되며, 오히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기회가 된다.

중심단어 : 고통, 하나님의 임재(부재), 신자의 정체성, 인생의 의미, 구속사역.

I. 여는 글

인간은 살다보면 형통한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 등

• 논문 투고일: 2010년 04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2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7일

과 같이 자신의 행동과 전혀 무관한 경우도 있고, 한 나라나 한 시대에 속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와 같이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강타한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거절되는 경험을 하며, 섭섭하고 답답하다 못해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불안해지고, 안달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해서 분노가 일면서, 의식적 차원 혹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분노조차 생기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이유를 알수 없는 역경 속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보면 이 역경에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회의가 생겨 결국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고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리고 동료인간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고통은 인생에 대한 넓고 새로운 개념과 태도(orientation)를 갖게 해주어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갖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을 망가뜨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잡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살아갈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믿으며 역경을 잘 넘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신앙을 잃지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즉 고통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신앙의 눈으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고난에 대한 이해

1) 고난 당할 때의 인간의 느낌과 반응

고통은 어떤 면에선 우주적인 현상이다. 고통이란 깨어지고 좌악된 현실의

일부이므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있다. 인간의 한정된 삶의 기간 중엔 고통이라는 요소가 으레 포함되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1) 소외감 혹은 자기 연민, 자존감의 위축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행운 혹은 형통함으로부터 제외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며, 세상이 자신을 제외시키고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에 놀라며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며 그 고통이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혼자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하며 자신의 처지를 아무도 이해해 줄수 없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또한, 자신의 처참하고 불행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잃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처량해지고, 자존감이 위축되며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조차 느낀다.

(2) 죄책감, 삶의 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회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예민해지고,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까지 죄책감을 느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예수님도 눈 먼자의 눈먼 것이 그나 그의 부모의 잘못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요한 9:3)하셨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의 실패를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관해 회의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고난은 우리 인간의 성품과 태도, 규칙과 가치에 회의를 품게하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추구에 도전을 한다.

(3)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기심과 안달감.

그런데, 역경에 포함되지 않고 인생길이 잘 풀리는 사람에 대한, 특히 악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하는 사람에 대해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고 부러워하면서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또한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불안해지고, 좋은 날이 빨리 오지 않음에 안달이 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 불행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

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고 싶은 생각이 고개를 든다.

(4)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

또한, 고통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위협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해서 분노가 일면서, 이 역경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이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계시다면 왜 그냥 보고계신지 의문이 일면서, 의식적 차원 혹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분노조차 생기게 된다. 즉, 소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더욱 고독감과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오래 노출된다보면 이 역경에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회의가 생겨,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결국 고난은 인간적, 영적,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를 하게 만든다.

2) 고통의 본질: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삶의 일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는 유한하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겪어야 한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C. S. Lewis의 말처럼 이 세상의 고통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움직여 가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외침이라 할 수 있다.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삶의 일부이기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신약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주님 역시 고난을 겪으셨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속박과 두려움과 수치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을 친히 겪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셨다.

Inbody는 “고통이란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곳에서 일

어난다”¹⁾고 했다. 즉, 고통이란, 아픔 그 자체보다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 실존적 현상이고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면이라는 것이다. Louw는 고통이란 “1)혼돈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미 알고 있던 삶의 질서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오는 안달감의 표현이고 2)역경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소용없으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표현이고 3)질서 잡혔다고 생각한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의 통찰이 적합하지 않아 해석할 상징과 비유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Suffering is a lack of vocabulary to interpret”(고통이란 해석할 단어의 부족이다.) 즉, 고통의 위기는 우리의 대처능력이 실패하고 무의미함이 자리를 잡는 곳에서 표면에 떠오른다”²⁾고 결론 짓는다.

3) 고난 속 고통의 역할

(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 및 성숙하게 해준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기비에 빠지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죄책감에 싸이면서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자기만족”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겸비해진 마음을 갖게 된다. 결국,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한낱 피조물일뿐이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퇴되고 말지만 소외감을 떨치고 희망을 찾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대상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함을 볼 수 있다. 필립 안시는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자원들을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곧 사랑, 희망, 존재의 느낌이다. 그렇다면 그를 도와주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의 신체에 가해지는 강력한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을 그의 정신에 주는 방향으로 집

1) T. Inbody, *The Transforming God: An Interpretation of Suffering and Evi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8.

2) D. J. Louw, *Meaning in Suffering* (Frankfurt am Main, Germany: Peter Lang, 2000), 17.

중되어야 할 것이다”³⁾고 말한다. 이 깨달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동료인간을 긍휼히 여기게 해준다.

(2) 이 한계 상황에서의 구조, 구원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준다.

고난 속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본질적으로 가난한 존재, 의존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은,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피조물이고 자신들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교만함을 비워내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진 사람”들이 되게 한다. MacDonald는 이런 상태에 대해 “자기 자신들의 본질적인 가난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가난한 피조물임을 느끼는 사람들, ... 자신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 어떤 사람이 나는 낮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 말할 때, 그때 천국의 문이 그의 앞에 열리기 시작한다”⁴⁾ 고 말한다. 칼빈도 질병이라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우리의 초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에 시달림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되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⁵⁾

3) Philip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김영희 역,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201.

4) G. MacDonald, *Life Essential* (Wheaton: Harold Shaw Pub., 1974), 43-44.

5) 콜리니 제독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서, (제네바에서, 1563년 8월 5일), 제네바 도서관 소장. 그말씀 편집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 설교자 존 칼빈”, 『그 말씀』 제10월호(1999): 185.

아마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래서 복되다고 부르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마태 5:3)들일 것이다. 즉 고난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도구인 듯하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고난 속 고통은 인간을 강인하게 단련시킨다.

고통은 현실과 새로운 실존적 가능성과 변화의 기회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안전과 미래의 목표라는 욕구를 위협한다. 그 결과, 고난에 굴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려움과 무력감이 있다. 그런데, 고난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덜 두렵고 뭘 해야할 지를 알게된다. 필립 안시는 삶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Frankle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한, 우리는 심리적으로 살아있게 된다 (psychically alive). 사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숙해지고, 고통으로 인해 자라나게 된다, 즉 고통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강인하게 해준다”⁶⁾고 갈파한다. 실제로, 고통은 우리를 견고케 한다. 미국 남북 전쟁 후 KKK단의 극심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흑인 인권운동을 펼친 존 퍼킨스 목사는 “내가 시련가운데서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 시련으로 인해 나는 더 강해집니다”⁷⁾라고 말하였다. 아마도 그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성경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또한,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 5:3-5) 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이 우리 안에 인내로 인한 원만한 인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6) V. Frankle, *The Doctor and the Soul* (London: Souvenir, 1969), 109.

7)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175.

오래한 벨슨 만델라나, 신영복 교수에게서 보이는 심리적 여유와 인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4) 삶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New Orientation)가 생기게 해준다.

아마도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기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히 5:8-9은 예수님에 대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를 체험하여 배웠다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하려 하심이니라”(롬 8:28-29)에서 보듯,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니, 그 아들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를 본받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고난이라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생기게 도와준다. 고통은 영적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된다. 즉, 하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어떻게 동일시하시며, 이 동일시가 하나님의 동정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드러내어 인간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체성의 질문이 목회상담과 돌봄에서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2. 고난과 관련된 신학적 의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 인생의 의미

Louw는 목회상담에서 고통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라는 두 대치되는 속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고통이란 신학적 주제로서,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능력)과 하나님의 인간과의 유대(solidarity결속, pathos인간에 대한 연민)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동일시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우주에 편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다. 그 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징계를 강조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고통으로부터 너무 멀리있는 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현실로부터 격리되게 제시하는 위험을 야기한다. 즉, 고통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omnipotence)과 사랑이 악이라는 예민한 문제의 용어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될수 있나?하는 것이 관건이다.”⁸⁾

그런데, 목회신학과 목회상담에서 우리의 과제는 고통과 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은 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그보다는, “목회 돌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용기를 자아내고 성장과 소망을 자아내기 위해 고통 속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하는 해석학적인 것”⁹⁾이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게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데 장애물이 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 고난 속에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

1)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설명.

먼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극적 사건과 인간의 존엄성이 부인되는 상황인 고난 속에서, 인간사로부터 제외되어 소외감을 경험한 인간은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고통스런 질문을 하게된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장 생생하게 제시한 욥기에서조차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

8) Louw, *Meaning in Suffering*, 15.

9) Louw, *Meaning in Suffering*, 17.

으신다. 오히려 고난의 원인보다 일어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관심을 집중한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조건적 용납과 지지와 이해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와 거절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처참함을 느낀다. 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2)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과의 친밀성 결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또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해서 분노가 일면서, 이 역경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이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계신다면 왜 그냥 보고계신지, 고통 속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의문이 일면서, 의식적 차원 혹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분노조차 생기게 된다. 즉, 소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더욱 고독감과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 특별히 고독감이 만연된 Postmodern 사회의 인간의 가장 핵심 욕구는 “친밀성의 욕구”¹⁰⁾(need for intimacy)인데, 즉, 거절당할 위험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받고 싶은 필요성이다. 그러므로, 신학에 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 (solidarity, 연합, 임마누엘)은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실망은 종종 인식된 불의 또는 실제적인 불의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남기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 William Backus는 “참으로 어렵고 추한 것은 분노, 우울증, 불안, 혹은 우리의 과거력이 아니며 질병이나 사고, 상실, 마음의 고민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 속에서 누리는 삶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우리 영혼 속으로부터 떼어 놓기 원하는 깊이 갈라진 틈이다”¹¹⁾라고 말한다. 우

10) D. J. Louw, *A Mature Faith: Spiritual Direction and Anthropology i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euven, Belgium: Peeters, 1999), 293.

11) William Backus, *The Hidden Rift with God* (Ada, MN.: Bethany, 1990), 11, 26, 32-38, 175.

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문제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으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적어도 실망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무관심한 태도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내가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 “고통이란 인간의 역사에서 섭리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추구는 결국 사건과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망의 표현이다.”¹²⁾ 그런데,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은 특정한 인간 행위나 행위의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이다. 즉, 고난 속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위로받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즉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풀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유를 알수 없는 역경 속에서 오래 노출되어 있다보면 이 역경에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등등에 대해 회의가 생겨,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결국 고난은 인간적, 영적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를 하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되면 고난 속에 인생의 의미를 알게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의 시기에,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재점검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방향성을 정하는 확인하는 과정은 이것이 그들의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목회상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 논문의 가설은 하

12) Louw, *Meaning in Suffering*, 16.

나눔에 대한 개인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다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그들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목회상담의 역할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삶 속에서 생생한 소망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 하겠다.

3) 하나님의 부재인가 임재인가?

고난 속에서 인간은, 고통이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간에 혼자 있다는 강렬한 느낌과,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해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15)고 하셨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하셨다. 고난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고난과 고통에 놀려 눈이 어두워져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으리라. 고난 속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야 인간의 영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 폭풍이 일 때,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에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놀리다,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다.

독일의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4년간 포로생활을 했던 크리스천 리거는 “하나님은 나를 구해 내시지도,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시다. 그분은 단지 나에게 자신은 여전히 살아 계시며,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주셨습시다”¹³⁾라고 말했다.

13)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130.

정신과 의사인 Paul Meier와 Frank B. Minirth, 그리고 심리학자인 Frank B. Wichern Donald E. Ratcliff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영적 배경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결여가 인간의 정서적인 고통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정서적인 고통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결여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소외감은 인간 문제의 기본이다. 그의 사랑과 회복과 수용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¹⁴⁾

그렇다. 고난 속에서 인간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아시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아시고 동일시하고 계신다.

(1)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직접 고통당함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아실뿐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와 한편이 되어 주신다. 실제로 주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자를 보고 공황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지만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므로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하는 질문에 대해, Phillip Yancey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14)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의 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4), 326.

“그분은 타락하고, 반역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창조력을 인증해 줄, 또한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를 무장시켜줄 한 고통의 체제를 고안하시면서 처음부터 거기 계셨었다. 그러한 세상을 견디고 살아나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친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한 편이 되어 주셨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셨다. 그분은 상처받으셨고, 피흘리셨고, 우셨고, 고난당하셨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높여 주셨다. 그분은 지금도 그 영을 통해, 우리를 지탱해 주며 몸된 교회의 머리를 위해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도록 위임받은 그 몸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믿기 어려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¹⁵⁾

여기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해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고, 우리를 낙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며, 그곳에서도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몸소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우심으로, 어떤 의미에서 고통에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일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셨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아꼈만한 아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 귀한 아들을 고통과 고난, 죽음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셨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마치 아무 능력이

15)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254.

없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의 아들의 절규에도 능한 팔을 접으시고, 아들이 찢리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눈을 감으신채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 아꼈만한 아들을 내어버려두고 인간을 그보다 더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 중에 가장 알맞고도 아름다운 표현이다. 왜냐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지극함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지 않은 모습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고난 속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주는 영감적인 통찰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¹⁶⁾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나 명성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버리신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인간과 동일시하셨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리 잘못하였기에?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고통이? 내가 비록 잘못된 것 알지만, 이 세상에는 못된 짓하고도 잘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불평한다. 그런데, “내가 뭘 그리 잘못하였기에?”라고 반문하는 인간 앞에, 전혀 잘못이나 죄가 없는데 고난당하고 죽음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죄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나의 죄의 누명을 쓰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억울한 사연 중에 이보다 더한 억울한 사연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십자가 위에서 할말 많으신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 마디 변명이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묵묵히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다. “왜 하필 저 입니까?”하는 인간의 반문과 항변에 하나님은 “아무 죄없는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데, 왜 너면 안되더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안타까와하시고 공허히 여겨 주신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동일시 하신다는 증거이다.

시편 77:1-9절은 고난 속의 안달에 찬 절박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16) Louw, *Mature Faith*, 257.

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 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셨다. 그 아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의 심정과 상황을 아신다.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역경에 처한 인간의 마음을 고통을 당해본 당사자로서 아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잘되었다고 하시지 않고,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빨리 최선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때, 즉,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이는 세상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 대한 섬세한 관심을 보이심으로 분명히 가르치셨다 (역전의 신학).¹⁷⁾

3. 고난을 통한 인생의 의미: 고난에는 뜻이 있다.

1)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 검증과 시련의 기간

(1)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

한편, 인간 부모가 때때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오류 때문에 우리를 책하거나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17) R. Batey, *Jesus and the Poor* (New York: Harper & Row, 1972), 19.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하셨으니 우리가 못나서 부끄럽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문제 해결의 핵심 비결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때로, 문제나 역경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고 이 생각의 배경에는 주변 인물 특히 자신의 안전의 보장이 되는 부모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나 벌주는 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꼈만한 아들 대신에 아껴서 구원 받은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치유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고난을 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박힌 것 같은 고난이 와도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크리스천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험은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험하고, 우리의 형편을 검증받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한다 (벧전1:3-9: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감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죽을듯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부활이 있듯이, 그 고난이 주는 시간의 시험에서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는 정제되고 깨끗해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2) 우리의 정체성 확립

결국,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재정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주인되심에 대한 회의를 품다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임재와 다스리심을 체험하며 공허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 받은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요 철을 더 단단하게 하는 제련의 과정이다. 거저 받은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드릴만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Louw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인간 행위나 행위의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이고, 그 (은혜)에 포함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우리의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역할의 특징과 자질에 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질에 관하여 도전을 받는 것이다”¹⁸⁾ 라고 하였다. 그 시험과 검증의 과정을 마칠 때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 (벧전 2:9, 10)라고 그리스도 안의 확실한 지위를 확인하게 된다.

결국, 고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

18) Louw, *Meaning in Suffering*, 135.

리의 소명을 재확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비록, 고난이 아프고, 싫고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한 큼을 깨닫게 된다. 결국, 고난은 밀쳐버려야 할 참화가 아니라,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여기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하고 강하게 하려 하심이 분명해졌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벰전 5:10),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하려는 목적(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벰전 1:7)임을 알뿐 아니라,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벰전4:12-13)고 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 아무 공로없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또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한다.

III. 닫는 글

인간이 고난 속 고통을 느끼면, 고난과 고통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임을 인식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야 고난에 담긴 의미를 알게된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되셔서 신실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이처럼 고난에 담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고난 중에 만나고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심에 대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시 78:4) 하게 된다.

【 참고문헌 】

- Backus, William. *The Hidden Rift with God*. Ada MN.: Bethany, 1990.
- Batey, R. *Jesus and the Poor*. New York: Harper & Row, 1972.
- Frankle, V. *The Doctor and the Soul*. London: Souvenir, 1969.
- Inbody, T. *The Transforming God: An Interpretation of Suffering and Evi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Louw, D. J. *A Mature Faith: Spiritual Direction and Anthropology i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euven, Belgium: Peeters, 1999.
- Louw, D. J. *Meaning in Suffering*. Frankfurt am Main, Germany: Peter Lang, 2000.
- MacDonald, G. *Life Essential*. Wheaton: Harold Shaw Pub, 1974.
- Meier, Paul., Minirth, D., Wichern, Frank B. & Ratcliff, Donald E. 전요섭, 안경승, 이은규, 강경미, 한재희, 박행렬 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Yancey, Philip, *Where Is God When It Hurts?* 이영희역.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그말씀 편집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 설교자 존 칼빈”. 『그 말씀』 10월호(1997): 185.

【 Abstract 】

A Pastoral Counseling Approach to Suffering:
Searching for a Meaning in Suffering

Young Hee Kim Shim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In Postmodern society, there is no way of escaping from facing problems and crises and suffering as a result. Crisis and trouble causes us to feel the feeling of desertedness, anger, frustration and loneliness. It also lead us to doubt about the love of God, anger to God and shake our identity. However, through suffering if we recognize our limitation as creature, and seek God' s involvement in our life, we can assure the love of God for us through redemptive work (incarnation,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lso, we certainly can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with us in the middle of deserted feeling of the absence of God and therefore we can recover the intimacy with God. In this perspective suffering as a testing period of our identity as a believer, suffering can give us the meaning and value of our life, and it enables us to possess new and wider perspective and attitude to life and other human beings and to our living God.

Key words: suffering, presence of God, identity, meaning in suffering, redemption